

Title : “격려” *“Encouragement”*

또 다시 2019 새로운 한해의 문이 열렸다. 누구나 그렇듯이 새해 벽두에는 설레이는 마음으로, 큰 꿈을 이루어 보려는 비장함이 있다. 그래서 각자의 꿈에 맞는 계획을 세워서 실천에 옮기기 위해 기도를 하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야심찬 구호를 외치며 다짐에 다짐을 한다. 부모들은 자녀들 특히 청소년들이 게임이나 인터넷 중독에 빠지지 않고 학업과 체력 증진, 재능 개발에 집중 하도록 하기 위해서 수많은 규정이나 조건을 내 세우며 타협(?)을 한다. 한 예로 “주중에는 절대로 게임을 할 수 없고 주말에는 하루 한 시간 혹은 두 시간 허락하고 단, 상 별이 있을 때는 추가 보너스 시간 혹은 의무를 따르지 않았을 때는 시간이 줄어든다 등등...” 아마도 요즘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이 일이 가장 크고 힘든 전쟁과 같은 일이라고 보여진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나 보호자들은 “네가 숙제를 안했고 아침에 일어나 침대를 만들지 않았으니 시간을 줄일거야” 라고 엄포를 놓는다. 아이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게임 시간을 줄인다는 사실만 생각하고 너무 슬퍼하며 나중에는 부모를 미워하고 반항까지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하여 시간을 줄이겠다는 벌칙을 사용하기 보다는 “이번에 시험을 잘 봤고 매일 아침 스스로 일어나서 침대를 만들어 놓고 학교를 갔으니 보너스로 30 분을 추가시켜 줄게” 하는 것이 지키기로 한 약속 이행에 대해서 책임감도 생기고 약속도 지켰으니 거기에 해당하는 ‘상’이 따르는 원리를 따르고 기대하는 모습을 갖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할 것이다. 영, 유아의 경우 또한 “자꾸 찡찡거리고 말 안들으면 타임 아웃 할거야(아무것도 못하게 하는벌주기)” 한다면 어린 아이가 자기가 뭘 잘못해서 벌을 받아야 하는지 생각하기전에 “엄마, 아빠 미워” 라고 하며 부정적인 분위기로 돌입하게 된다. 그런 경우 역시 “엄마가 놀아줄게, 혹은 우리 맛있는거 같이 먹을까?” 하는 화제를 변화시켜 기대감과 설레임을 동시에 느끼면서 행복감에 싸이게 하는 것이 정서적으로 교육적으로 좋을 것 같다. 또한 사회 생활을 하는 젊은이들은 직장에서 승진하고 소위 “잘 나가는 사람”, “성공한 사람”이 되기 위해 여러 가지로 노력한다. 상하 체계가 되어 있는 단체 속에서도 “단점을 지적하면서 책망하는 분위기 보다는 잘하는 것을 다른 사람도 알 수 있도록 해서 본이 되게 하고 업적을 치하한다면 그후로 더 인정받고 자존감을 세워 믿음직스러운 자세로 업무에 효과적이 될 것임은 자타가 인정할 것이다. 어떤 이는 새해에는 결혼을 하기 위해서, 어떤 부부는 자녀를 갖기 위해서, 어떤 이들은 재정적 안정을 위해서, 어떤 이들을 건강한 육체를 유지하거나 되찾기 위해서 등의 셀 수 없이 많은 우리의 소망과 목표를 이루기 위한 의지와 노력이 있다. 특히 부부간에도 서로 배려하고 격려하며 아끼고 사랑하는 긍정적인 언행이 따른다면 당연히 두 사람은 정말 행복하고 결혼 생활의 만족감으로 살게 될 것이다. 어떤 남편이 퇴근해서 어느 샵핑센타에

들러 여자용 작은 선물을 사 가지고 귀가하려고 하자 상점 점원이 물었다 “뭐가 그리도 좋은가?” 그가 대답하는 것은 “해피 와이프, 해피 라이프 Happy wife, happy life” 라고 했다는 것이다. 본인이 좋아하는무엇인가를 가질때 만족하고 행복해 하는 것보다 남(배우자)에게 좋은 물건이나 소식을 전해 줄때 진정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갑절이상 생겨난다는 뜻이리라. 물론 매일 그런 선물을 줄 수는 없을 것이고 그런 물질 공세만이 부부를 행복하게 만드는건 결코 아닐것이다. 상대방을 생각하며 배려하고 아껴주고 고마움을 수시로 표현하면서 배우자에게 대우하는 것이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살맛나는 재미가 생기고 그래서 더 사랑하고 아껴주고 존중하는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원리가 된다고 하겠다. 어린 아이들에게 잘 못하는 것을 꾸중하고 지적하는 것보다 더 잘 할 수 있도록 칭찬과 박수를 보내줄 때 아이들은 신이 나서 더 잘하려는 시도를 계속하는 원리가 되듯이. 어디 그뿐인가 어른들도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이다. 조금 부족한 듯해도 박수와 칭찬을 받을 때 더 격려가 되서 용기백배되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연예인이나 정치인들도 관중의 박수소리에 용기가 충전하고 관중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노력이 계속되는 것 아닐까? 나를 포함한 한국인들이 특히 잘 못하는 것이 있다면 남의 불행에 함께 울어 줄수 있지만 남의 기쁨에 진심의 축하와 함께 기뻐해 주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면 2019 년 한해에는 격려의 사람, 그들중에 꼭 있어야 할 사람, Peace maker,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열심히 뛰기를 소망한다. 우리에게는 가장 큰 격려자가 있으니까.... 할 수 있다 하신 이!

**이사야(Isaiah) 41:10**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인 됴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